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 억조창생(億造創生)

-물질적 상상력과 오브제-

윤진섭(2016' 총감독/ 미술평론가)

1. 주제에 대하여

2016년에 열린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는 '억조창생(億造創生)'이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원래 '억조창생(億兆蒼生)'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금은 다소 낡은 말이 돼버렸지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통 사극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당한 어명을 내리면, 문무백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전하! 억조창생을 굶어살피시옵소서!"라고 외치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이때 억조창생이란 말은 '만백성'을 가리킨다. 나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봐 온 사극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주제를 구상했다.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구상한 '억조창생'을 영어로 번역하면 대략 "We create things, things create us." 정도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 전시의 도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조각을 다루는 격년제 미술 행사이다. 미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 조각만큼 '만든다'는 인간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물론 공예나 건축도 인간의 창작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흙을 비롯하여 나무, 돌, 쇠, 구리, 시멘트 등등 원초적 자연의 질료를 통해 예술적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각만큼 생생한 것이 없다. 조각가들은 원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거기에 예술의 혼을 불어넣는다. 따라서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조각가들의 행위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데미우르고스의 후예들이다. 플라톤의 저작 '티마이오스' 편에 나오는 이 말은 원래 '제작자'를 의미했다. 세계를 창조하는 거인, 즉 데미우르고스는 선성(善性)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자신을 닮기를 바라면서 무질서와 혼돈에 질서를 부여했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데아를 범본으로 옹호한 영혼을 지닌 이성적 존재로서의 사물을 창조했다. 그러나 세계가 이미 존재하는 질료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은 데미우르고스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해 낸(creatio ex nihilo)' 창조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에서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현대예술의 숙명이다. 따라서 데미우르고스의 후예인 현대의 예술가들은 오직 상상력을 통해 존재하는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이다. 성산아트홀 전시관 전관에서 열린 [오브제-물질적 상상력전]은 말 그대로 오브제를 다루는 작가들을 초대하여 사물의 본성과 그 변용 양상을 살펴볼 목적으로 만든 전시다. 오늘날의 작가들은 사물을 어떻게 다루며, 일상에서 구한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작품화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다다(Dada)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브제가 예술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그것은 현대예술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었다."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오브제-물질적 상상력전]은 오브제와 설치미술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꾸민 전시였다. 뿌리 없이 부유하는 듯한, 마치 비엔날레를 겨냥한

또한,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이랄까 그것이 그것 같지만 한 개성이 상실된 일부 청년 작가들의 행태를 보며 독자적인 작가들을 선정해서 물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 전시였다. 따라서 용지호수공원에 설치된 조각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인 주제전이 바로 이 전시였던 것이다.

'물질적 상상력'은 프랑스 출신의 저명한 과학철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가스통 바슐라르의 잘 알려진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일찍이 그는 고대 그리이스 이래 형성돼 온 서양철학의 전통, 즉 합리적 이성에 가려진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에 주목하였다. 그는 사물의 이미지와 사물에 대한 인간의 감성에 주목하여 인간들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 흙, 물, 불, 공기 등 4원소를 근간으로 사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시도하여 인간 정신의 우주적 감응을 시도한 것이다.

나는 이 전시를 통해 물질을 다루는 작가들의 내면세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오브제를 표현의 재료로 사용하는 작가들을 주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전통사상에 의거, 불(火), 물(水), 나무(木), 쇠(金), 흙(土) 등 오행으로 분류한 뒤, 현대미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변용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전시가 지닌 의미는 무엇보다 '물질적 상상력'의 복원에 있다. 불, 물, 나무, 쇠, 흙 등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5원소에 대한 미학적 내지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물질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것과의 만남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오늘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2. 전 시

[야외조각전](용지호수공원 주변)

창원시의 외곽에 자리 잡은, 그러나 도심에서 멀리 않은 용지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공원은 예술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었다. 운동 시설과 산책로, 조깅 코스, 등산로, 잔디밭, 테니스장 등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휴식을 위한 시설은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예술품 감상을 위한 전시장 및 야외 조각공원은 조성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창원시는 이번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계기로 야외조각공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초대작가:

해외 : 노벨로 피노티, 밌모 팔라디노,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첸웬링, 양치엔 등

국내 : 김영원, 박은선, 이일호, 한진섭, 신한철, 한효석, 이경호, 김승영, 이재효, 홍지윤, 윤진섭(조각), 박원주, 이응우, 전원길, 고승현 등

성산아트홀/실내전

[오브제-물질적 상상력] 전

성산아트홀에서 선보일 실내전의 제목은 [오브제-물질적 상상력]이다. 국내외 작가 약 50여 명이 초대된 이번 전시는 오브제(Object)를 매개로 전개되는 설치전이 중심을 이룬다. 성산아트홀 7개 전시실 약 800여 평의 전시 공간에서 펼쳐지게 된 이번 전시는 주로 전위(Avant-garde)의 입장에서 작업해 온 작가들의 기존 작품, 혹은 프로젝트 작업들이 소주제에 따라 분류, 전시되었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개념에서 빌어 온 '물질적 상상력(Material Imagination)'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기본 4원소인 '흙, 물, 불, 공기'를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본 전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를 주역을 중심으로 한 동양철학의 5개 범주, 즉 오행(물(水), 불(火), 나무(木), 쇠(金), 흙(土)) 등의 개념과 융합, 이러한 요소들이 현대 조형예술에

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میم모 팔라디노(Mimmo Paladino) 특별전](성산아트홀)

이탈리아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트랜스 아방가르드(Trans Avangarde)의 대표작가 중 한 사람인 미모 팔라디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좋은 기회였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평론가이자 기획자인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Achille Bonito Oliva)가 80년대 초반 미니멀리즘이 종언을 고한 뒤 미국의 뉴페인팅, 프랑스의 신구상회화, 독일의 신표현주의 등 구상의 복권을 기도하는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전역에 일어났을 때, 신화를 주제로 한 이탈리아의 엔조 쿠키, 산드라 키아,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등 독자적인 화풍을 지닌 작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미술사조에 뒤늦게 참여한 미모 팔라디노는 정작 이 용어를 달가워하지 않아 주목된다. 한국에 소개된 적이 있는 엔조 쿠키와는 달리 미모팔라디노는 그룹전을 통해 간헐적으로 소개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특별전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모 팔라디노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국민작가 중 한 사람이다.

[김인경 특별전](성산아트홀)

김인경은 40여 년에 걸친 작품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추상 조각의 세계를 구축한 작가이다. 초기에는 엄정한 질서와 동일한 단위의 반복에서 오는 균제미를 통해 모더니즘 추상 조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는 2천 년대에 접어들어 무엇이라고 딱히 규정할 수 없는 사물들을 만드는 작업에 빠져들었다.

균용물품을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형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착륙한 듯 보이는 우주선을 비롯하여 비행접시, 혹은 거대한 로켓, 코끼리 등등 그가 제작한 사물들은 그러나 무엇을 연상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닐 뿐, 뚜렷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 모호한 세계를 발판으로 벌어지는 조형적 드라마가 바로 김인경이 추구하는 세계의 본질이다.

[창원 조각의 어제와 오늘-5인의 거장 특별전](성산아트홀 7실)

창원이 낳은 한국 근현대의 대표적인 조각가 5인의 작품세계를 기리는 특별전이다. 우성 김종영(1915-1982), 문신(1923-1995),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한국 현대조각을 대표하는 정상급 작가의 작품을 통해 구상과 추상 등 한국 현대조각의 단면을 살펴볼 좋은 기회이다. 이들 5인의 거장들이 창원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역사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대학 교수를 역임한 우성 김종영은 조각과 서예 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사물을 단순한 형태로 환원한 김종영의 조각은 한국 모더니즘 조각의 선구자인 작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신은 파리를 중심으로 주로 유럽에서 활동, 이름을 남긴 조각가이다. 귀국 후 문신미술관의 설립을 통해 작품 활동에 주력하였다.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대칭형의 흑단 목조각이 대표적이다. 박종배는 순수 추상의 세계에 몰입해온 모더니즘 조각의 대표작가이다. 오랫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환원적 특징이 두드러진 조각 세계에 몰입해 왔다. 홍대 교수와 미협 이사장을 역임한 박석원은 미니멀한 형태의 모더니즘 조각이 특징이며, 석조와 브론즈를 통해 단순미를 추구하고 있다. 홍대 미대 학장과 한국조각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원은 구상조각계의 중진 작가이다. 광화문의 세종대왕상 등 대표적인 초상조각이 많으며, 초기에는 초현실주의풍의

집단적 인체 조각을, 최근 몇 년간은 단순화된 반구상의 형태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각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조각의 거장인 노벨로 피노티와 함께 2인전을 가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시선-비평가와 창작의 사이전](성산아트홀 7실)

비평가와 전시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회화, 조각, 도예, 개념미술 등 평소에 창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관객들은 이번 출품작을 통해 평소에 비평가와 전시기획자로 알고 있는 참여작가들이 어떻게 실제 조형 활동을 하는가 하는 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다. 오늘날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많은 수의 비평가와 전시기획자들은 연구실과 서재의 밖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품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 한정된 작가의 작품을 특유의 조형 세계를 선보인다.

[헨로 파운데이션 국제조각상전](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이 전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대리석 가공 회사인 헨로 주식회사의 파올로 칼리(Paolo Carli) 회장과 에르미니오 지도니오(Erminio Gidonio)가 설립한 헨로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헨로국제조각상(SIHX:6 Marble Art Works from the Henraux Foundation International Sculpture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한 역대 수상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상은 2년마다 공모를 통해 40대의 젊고 유망한 작가를 선정, 회사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최상의 재료는 물론,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 국제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권위 있는 상이다. 헨로 파운데이션은 헨리 무어를 비롯하여 한르 아르프, 이사무 노구치, 조르주 반통겔루 등 수많은 조각가와 함께 국제적 조각센터를 조직하여 문화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본 전시는 2012년 제1회 수상자인 알렉스 봄바르디에리(Alex Bombardieri)를 비롯하여 2014년 제2회 수상자인 카엘 오한자반, 필리포 치아볼리 코리텔리(Filippo Ciavoli Cortelli), 마시밀리아노 펠레티(Massimiliano Pelletti), 제3회 수상자인 다니엘 구이두글리(Daniele Guidugli), 김 드 루이스체(Kim de Ruyscher)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